

‘계’ 염자도의 주제 연구

서성* · 강희안**

〈차 례〉

1. 문제의 제기
2. ‘염계한천’의 의미
3. 조선 시대 ‘계’에 대한 문화적 의미
4. ‘전퇴후퇴’의 의미
5. 주돈이와 주희의 염퇴
6. 조선에서의 염퇴의 장려
7. ‘계’ 염자도의 주제와 의의
8.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계’ 염자도(廉字圖)에 나타난 ‘계’의 형상 및 화제(畫題)를 둘러싸고 모호하게 해석된 점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그림의 주제 해석에 있어서도 조선 시대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근거를 찾아내 더 적절한 독해를 시도하였다. 먼저 ‘계’의 해석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화제를 ‘염계한천, 전퇴후퇴’[廉溪寒泉, 前退後退]로 정하고, “염계선생 주돈이와 한천정사를 세운 주희는, 처음에도 물러났고 나중에도 물러났다.”고 풀이하여 두 사람의 염퇴 정신을 기린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조선 시대 ‘계’에 관한 문화적 인식을 『곽삭전』과 『무장공자사』 등에서 찾아냈으며, ‘물러남’을 높이 치고 ‘나아감’을 비판하는 보편적인 인식도 확인하였다. 또 주돈이와 주희의 행적에 대해서도 소동파와 송 효종이 ‘염퇴’(廉退)라 평가하였음을 보고, ‘계’ 염자도의 주제가 ‘염퇴’라고 판단하였다. ‘염퇴’는 사양하고 양보하는 겸손한 마음가짐이지만, 사회적 맥락에서는 벼슬을 물리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염퇴’의 정신은 유교 국가인 조선 시대에 나라의 기강과 사회의 기풍과도 관련되기에 더욱 중시되었다. ‘계’는 걸핏하면 뒷걸음질을 쳐 제 집으로 물러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계’ 염자도는 상단의 계로 형상화된 선비가 벼슬을 물리치고 염퇴하여 글자 획으로 얽혀진 은자의 ‘세 갈래 길’이 있는 정원에서 연결한 정신을 수양하는

* 서성, 배재대학교 교양교육부 부교수(주저자)

** 강희안, 배재대학교 기초교육부 부교수(교신저자)

것으로 해독할 수 있다. 그 길에서 소나무와 국화를 원상하며 도연명의 염결을 떠올릴 수 있고, 수석을 감상하고 배를 타며 육적의 청렴을 본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계’ 염자도는 상하 구조를 통합하여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고, 문자의 자획들이 자획이면서 동시에 조형 형상이 되도록 설계하여 높은 예술적 완성도를 이루었다. 무엇보다도 조선의 자체적인 문화적 기호로 ‘계’의 형상을 창의적으로 사용한 점과 조선의 염퇴 문화를 간결한 형상과 자획으로 절묘하게 통합한 점은 ‘계’ 염자도가 어느 문자도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다.

[주제어] ‘계’ 염자도, 염(廉), 계, 주돈이, 주희, 도연명, 육적, 염퇴(廉退), 문자도

1. 문제의 제기

조선 시대에 유행한 문자도(文字圖) 가운데 하나인 염자도(廉字圖)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유형 중의 하나는 ‘계’가 중심 이미지로 등장하는 ‘계’ 염자도이다. ‘계’ 염자도를 보면, 한자 ‘염(廉)자의 첫 획인 점이 있는 자리에 ‘계’를 비교적 크게 그리고, 아래의 나머지 자획 속에 소나무, 국화, 수석 또는

배를 작게 그려 넣은 걸 볼 수 있다. ‘계’가 자획 바깥 상단에 나와 있는 게 선명히 돋보여, 한눈에도 ‘계’가 중심 이미지이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형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쉽게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림에 적힌 화제(畫題)는 중요하고 유일한 자료로 보인다. 때문에 이전의 연구들은 화제를 끌어와 ‘계’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계’ 염자도를 해석한 예를 보이면 아



[그림1] ‘계’ 염자도

래와 같다.

(1) 계의 등장은 계의 행동 습성을 인간의 윤리에 조응시킨 결과이다. 간혹 “염계한천 전진후퇴 울림극석 울리송국(廉溪寒川 前進後退 鬱林戟石 栗里松菊)”이라는 화제가 붙어있는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이 화제의 내용을 통하여 계가 이 그림에 등장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말하자면 계는 앞으로 나아갔다가 뒤로 물러서는 것(前進後退)을 반복하면서 먹이를 찾는 행동 습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습성을 인간이 지녀야 할 도리, 즉 남이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 때 무조건 사양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분수에 맞으면 즐겁게 나아가 호의로 받아들이고, 분수에 넘치면 과감히 물러나 스스로를 다스려야 한다는 염(廉)의 도리에 조응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출처지리(出處之理)란 세상에 기꺼이 나아갈 때와 반대로 미련 없이 물러날 때를 알아 처신하는 것이 인간의 현명한 도리임을 깨우쳐 주는 말로, 염의 도리와 상통하는 것인데, 계가 자기 집에서 나와 먹이를 구하다가 주변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곧 집 속으로 되돌아가 몸을 숨기는 모습에서 이런 이치를 찾아 볼 수 있었던 까닭이다.¹⁾

(2) 염(廉)자에는 …봉황 대신에 계가 표현되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확실치 않지만 군자로서 염(廉)을 실천하는 것은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아는 것이 중요하여 뒷걸음질치는 모습으로 계와 가재 등이 표현되었다는 해석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가끔 ‘염’자에 쓰여진 화제 가운데 “염계한천 전진후퇴(廉溪寒川 前進後退)”라는 글귀가 보이기 때문이다.²⁾

(3) 간혹 봉황 대신 계를 그린 염(廉)자 글씨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계의 나아가고 물러나는 조심스런 행동 양태를 분수에 맞는 행위에 비유하여 염(廉)의 뜻에 결부시킨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³⁾

1) 허균, 『전통미술의 소재와 상징』, 교보문고, 1991, 140~142쪽.

2) 유흥준·이태호, 『문자도』, 대원사, 1993, 47~50쪽.

3) 임두빈, 『한국의 민화』 3 물고기 글씨 그림, 서문당, 1993, 43~44쪽.

(4) ‘廉溪’는 중국 송대의 성리학자 주돈이 선생이 거처하던 곳의 개울 이름인 동시에 호이다. “廉溪寒泉 前進後退”는 朱廉溪 선생이 청렴하여 관직에 연연하지 않고 나이감과 물러남에 절도가 있었던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림에서는 “廉溪寒泉 前進後退”는 ‘염’자 최상단이 게로써 표현된다. 주염계 선생이나 염계의 모습을 산수인물화로 표현하는 어려움 대신, 생물학적 특성상 전진후퇴가 분명하다고 여겨지는 게를 표현한 것이다. 게는 또 ‘무장공자(無腸公子)’라 하여 청렴함의 상징물로 사용되었다.⁴⁾

(5) 한천의 염계는 나가고 물러날 때를 안다(廉溪寒泉, 前進後退). 염계는 중국 송대의 성리학자 주돈이의 호로 그가 살던 곳의 개울에서 따왔다. 주돈이는 청렴하여 관직에 연연하지 않고 나이감과 물러남에 절도가 있어 후세의 모범이 되었다. 이와 같이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 전진후퇴를 반복하면서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자유롭게 전진후퇴를 반복하면서 먹이를 찾는 게의 모습을 그린다.⁵⁾

(6) 염자도에는 게 혹은 봉황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게를 그린 것은 “염계의 차가운 시내, 나아가고 물러남이여(廉溪寒泉 前進後退)”라는 송나라 유학자 염계 주돈이의 행적과 관련이 있다. 원래는 관직에 연연하지 않고 청렴한 모습의 주돈이를 그려야 하지만, 간략한 상징으로 나타내는 추세에 따라 전진과 후퇴가 분명한 게의 걸음걸이로 주돈이의 행적을 대신했다.⁶⁾

(7) 염계진퇴(廉鷄進退)는 닭이 모이를 쪼며 나가고 물러가는 것이나(廉鷄寒川 前進後退) 게가 먹이를 구하러 나가고 몸을 숨기는 것이 분수에 맞게 처신하며 청렴한 절도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뜻을 얻으면 펴고 물러나 때를 기다린다는 뜻으로도 쓴다. 염계(廉鷄)와 염계(廉溪)는 발음이 같아 주염계(周廉溪)라

4) 진준현, 『민화 효계문자도의 내용과 양식 변천』, 『명품도록』Ⅳ 민화·문자도편, 선문대학교출판부, 2003, 266~267쪽.

5) 『민화와 장식병풍』, 국립민속박물관, 2005.

6) 정병모, 『부명화가들의 반란, 민화』, 다할미디어, 2011, 131쪽.

고도 부르는 염계 주돈이의 청렴한 절도를 기린다는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⁷⁾

위의 의견들을 보면, 화제의 ‘염계한천’에서 ‘한천’은 차가운 시내로 이해했고, 원래 그림에 ‘전퇴후퇴’란 화제도 빈번히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전진후퇴’를 선택하여 게가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는 동작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하였다. (4)에서 게를 ‘무장공자(無腸公子)’라 부른 점에 착안하여 청렴함을 상징한다고 했지만 근거를 내놓지 않았으며, (7)은 염계(廉鷄)의 鷄(계)자가 와자(詵字)인데도 닭이 앞뒤로 오가며 모이를 쪼는 동작으로 이해하였다. 또 염자도의 주제에 대해서도 선행 연구들은 ‘청렴’, ‘분수에 맞는 행위’, ‘관직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 ‘나이감과 물러남에 절도가 있음’, ‘출처지리(出處之理)’ 등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이해는 물론 ‘염(廉)의 내용’이긴 하지만, 명확한 맥락이 없이 ‘염’의 개념 가운데 어느 일부분만을 드러낸 점이 눈에 띈다.

사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염’의 의미는 이들을 포함하면서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다. 예컨대 『주례(周禮)』만 보아도 ‘염’의 의미를 염선(廉善), 염능(廉能), 염경(廉敬), 염정(廉正), 염법(廉法), 염변(廉辨)이란 여섯 가지 의미 범주로 연결시키면서, 관리를 평가하는 최초의 기준으로 이 ‘육렴(六廉)’을 제시하였다.⁸⁾ 또 조선 시대 정약용도 자신의 기준으로 ‘육렴(六廉)’을 제시하였다.⁹⁾ 그렇다면 염자도는 대체 ‘염’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 것일까? 뿐만 아니라 위의 의견과 해석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도 더 던질 수 있다. 화제로 나오는 ‘염계한천, 전진후퇴(廉溪寒川, 前進後退)’는 글자의 출입이 심한데 어느 것이 맞는가? 또 그 풀이는 적절한 것인가? ‘계’의 의미를 해석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조선 시대 ‘계’에 대한 문화적 의미는 무엇인가? 염자도의 다양한 ‘염(廉)’ 개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러한 물음에 적절한 답을 얻지 못한다면 ‘계’에 청렴의 이미지를 뒤집어씌워 ‘무장공자’를

7) 김영재, 『민화의 뿌리』, 자유문고, 2015, 337쪽.

8)周公旦, 『周禮』 『天官』, 『十三經注疏』, 中華書局, 1998. 참조.

9) 정약용의 육렴 사상은 『爲靈巖郡守李鍾英贈言』와 『牧民心書』 등에 보인다.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참조.

창자가 없어 착복하지 않았기에 청렴의 표상으로 사용했다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염자도를 정확히 읽으려면 조선 시대 계에 대한 문화적 해석과 함께 ‘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염계한천’의 의미

‘계’ 염자도에는 일반적으로 화제(畫題)가 적혀있어 그림을 해석할 수 있는 힌트와 근거가 된다. 그런데, 이 화제는 그림마다 한자가 조금씩 달라, 먼저 화제의 원래 모습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초 설계자의 의도를 상정해야 이후의 화가들이 어떻게 변형시켰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 염자도에 적힌 네 구의 화제 가운데 ‘계’와 관련된 화제는 두 구인데, 세 폭의 그림에 적힌 화제를 쓰면 아래와 같다.

[그림2] 廉溪寒泉, 前退後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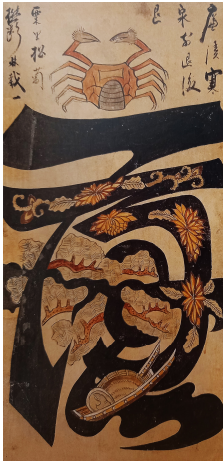
[그림3] 濂溪寒川, 前退後退.

[그림4] 礮溪寒川, 前進後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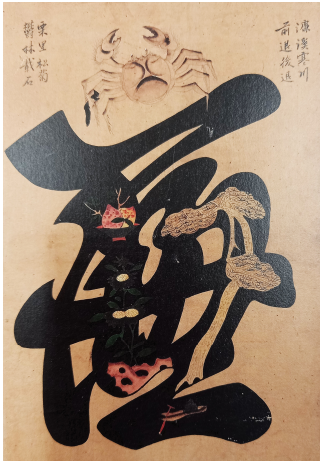
화제가 그림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을 보면, 이 화제가 쓰이던 시기에도 여러 해석이 있었고 때로 의미를 혼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처음에 나오는 염계[濂溪]는 지금의 중국 강서성 구강시 남쪽에 있는 여산의 연화봉 아래 흐르는 시내이다. 송대 성리학의 시조인 주돈이(周敦頤, 1017~1073)가 고향인 호남성 영도(營道)에 있는 시내 이름을 이곳에 붙임으로써 고향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경계하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¹⁰⁾ 주돈이

10) 주돈이는 그의 시 「양계서당에 적다(題濂溪書堂)」에서 염계의 풍광을 묘사하고 염계의 이름을 붙여 아침저녁으로 스스로 경계한다는 뜻을 나타내었다. “여산을 내 오랫동안 좋아하여, 산의 북쪽에 밭을 샀다네. 밭 사이로 흐르는 물이 있는데, 산 가운데에서 나왔기에 맑디맑다네. 산 가운데라 먼지가 없어, 흰 돌이 울망줄망 잠겨있구나. 몇 리를 줄줄 흘러, 이곳에 이르러 비로소 맑고 깊어졌다네. …나는 즐거워하고 쉽게 만족하니, 이름을 ‘濂’이라 지어 아침저녁으로 경계하리라(廬山我久

는 자신의 호를 염계라 했거니와 사람들은 그를 ‘염계선생(濂溪先生)’이라 불렀다. 그러므로 염계는 시내 이름이면서 동시에 주돈이를 가리킨다.



[그림2] 선문대 소장



[그림3] LA카운티미술관 소장



[그림4] 선문대박물관 소장

염자도에선 ‘濂溪(염계)’보다는 廉溪(염계)라 썼으리라 추측되는데, 사실 한자 운용에서 같은 발음의 글자를 가차로 쓰는 특징으로 인해 어느 글자를 써도 문제가 되진 않지만, 廉(염)이라 쓰면 ‘염’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음과 동시에 도천[盜泉], 탐천[貪泉], 염천양수[廉泉让水]¹¹⁾ 등과 같이 샘물과 시내에 정신적 의미를 붙이는 전통도 반영할 수 있어 더 효과적이다. ‘염계’ 이외에 드물게 [그림4]와 같이 ‘반계(礪溪)’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반계는 지금의 섬서성 보계(寶鷄)에 있는 강으로 강태공이 낚시하다가 주 문왕

愛, 買田山之陰, 田間有流水, 清洌出山心. 山心無塵土, 白石磷磷沈. 潺湲來數里, 到此始澄深 …吾樂蓋易足, 名濂朝暮箴.” 『周敦頤集』, 中華書局, 1990, 59쪽 참조.

11) 도천[盜泉]은 산동성 사수현에 있는 샘물로 공자가 지나가다 목이 말라다 마시지 않았으며(『尸子』), 염결을 중시하는 증자도 마시지 않았다(『淮南子』)고 한다. 탐천[貪泉]은 광둥성 남해현에 있는 샘물로 청렴한 선비도 이 물을 마시면 탐심이 생긴다고 한다. 염천양수[廉泉让水]는 남조 유송(劉宋) 때 명제(明帝)가 범백년(范柏年)에게 “광주에 탐천이 있는데 경의 고을에도 탐천이 있는가?”라 물으니 범백년이 “양주에는 오직 염천과 양수가 있습니다.”(『南史』 『胡諧之傳』)라고 답한 데서 나온 말로, 지역의 풍속이 순박하고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을 만난 곳이다. 강태공은 비록 만년에 출사를 하였지만 그가 평생 은거한 것도 ‘염’의 의미와 동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염계’에 이어지는 두 음절의 글자로 寒泉(한천)과 寒川(한천)이 많이 보이고 그밖에 寒波(한파)와 炎川(염천)이란 글자도 혹은 보이는데, 이들 가운데 寒泉(한천)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한천은 한천정사(寒泉精舍)로, 주희(朱熹, 1130~1200)가 40세 때 모친이 사망하자 지금의 복건성 무이산 아래에서 수묘(守墓)하며 한천정사를 세우고 6년의 저술 시기를 시작한 곳이다.¹²⁾ 특히 이 시기에 주희는 여조점이 절동의 동양(東陽)에서 찾아오자 한 달 반 동안 함께 『근사록(近思錄)』을 편찬하였는데, 학술사에서는 이를 ‘한천의 만남(寒泉之會)’이라 하여 잘 알려져 있다. 이전의 연구에선 ‘한천’을 술어로 보고 ‘염계한천’을 ‘염계는 차가운 샘물’이라 해석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이어져 나오는 ‘전퇴후퇴(前退後退)’가 술부이므로 결국 술어가 중복되어 문맥이 자연스럽지 않게 된다. 만약 ‘염계’ 다음에 술어를 둔다면 ‘청한(淸寒)’이나 ‘징심(澄深)’ 등 얼마든지 뜻이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어휘를 쓸 수 있는 데도 그리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아무래도 ‘한천’을 명사형의 주어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결국 ‘염계한천[廉溪寒泉]’을 주부로 보아 “염계선생 주돈이와 한천정사를 세운 주희”라 한다면, 뒤에 오는 술부인 ‘전퇴후퇴[前退後退]’와 호응이 제대로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3. 조선 시대 ‘계’에 대한 문화적 의미

‘염계한천’에 이어지는 ‘전퇴후퇴’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 시대 ‘계’에 대한 문화적 관념과 ‘염’의 의미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어서 주돈이와 주희가 과연 ‘계’의 속성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전통 회화에서 ‘계’는 과거 급제를 기원하거나 축하하는 의미로 많이 그려

12) 寒泉이 주희가 세운 寒泉精舍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한국고전번역원 김종태 선생으로부터 얻었다.

졌다. ‘게’의 등껍질을 의미하는 ‘갑(甲)’을 빌려와, 과거의 장원 급제를 비유하기 위해 갈대를 집게발로 물고 있는 게를 그린 ‘황갑전려(黃甲傳臚)’, 그리고 상위권 급제를 비유하기 위해 게 두 마리를 그린 ‘이갑전려(二甲傳臚)’란 제재가 그것이다. 여기서 전려(傳臚)란 궁에서 임금이 급제자의 이름을 발표할 때 아래의 관리가 이름을 부르는 행위인데, 그림에선 이를 중국어 발음이 같은 ‘전로(傳蘆)’로 해음하여 ‘게가 갈대를 전해준다’는 형상으로 바꾸었기에 게가 갈대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

그러나 ‘게’의 형상이 ‘염’의 의미와 관련되는 그림은 문자도 외에는 찾기 어렵고, 또 한국과 중국의 인물고사에서도 ‘게’가 ‘염’의 의미를 나타내는 사례도 찾기 어렵다. 기존 회화의 전통 속에 ‘게’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조선 시대의 ‘게’에 대한 문화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게’는 여러 명칭으로 불리는데, 옆으로 걷는다고 해서 ‘방해(螃蟹)’라 하고, 집게발이 불기에 불을 들고 있는 모양이라 하여 집화(執火)라 하고, 또는 집게발이 검과 같다고 하여 옹검(擁劍)이라고 하며, 뒷발이 노 젓는 모양에서 발도자(撥棹子)라 하며, 속에 노란 알이 있다고 하여 내황사인(內黃舍人)이라 하며, 『포박자』에서 ‘무장공자(無腸公子)’라 처음 부르기 시작했으며, 『해보(蟹譜)』에서 옆으로 걷는 무사라는 뜻으로 횡행개사(橫行介士)라 했다.¹³⁾ 다리가 많은 모양 또는 모래발 위를 기어갈 때 나는 소리를 형용하여 ‘곽삭(郭索)’이라 했는데, 송대 양만리는 『조해부(糟蟹賦)』에서 게를 ‘오 땅의 무사 곽 선생(吳中介士郭先生)’이라 불렀다. 또 속이 약하고 겉이 강한 내외의 강(內柔外剛)의 모양에서 『주역』의 팔괘 중 이괘(離卦)의 특성 가운데 하나로 보았는데, 이는 이괘(離卦)가 가운데의 음효(陰爻)를 위아래의 양효(陽爻)가 둘러싸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¹⁴⁾

조선에선 중국에서 사용한 ‘게’의 명칭과 의미를 다수 차용하였는데,¹⁵⁾ 이

13) 余庭璧, 『事物異名校注』, 山西古籍出版社, 1993, 414쪽. 게에 관련한 자료를 전면적으로 모은 저작으로는 송대 傅肱의 『蟹譜』와 高似孫의 『蟹略』이 있다.

14) 伍華 主編, 『周易大辭典』, 中山大學出版社, 1993, 589쪽: “離爲蟹, 爲蟹, 爲贏, 爲蚌, 爲龜, 皆取剛在外也.”

중 ‘창자가 없는 남자’란 뜻의 ‘무장공자’란 말이 인상 깊어서인지 조선의 시문에 많이 반영되었다. 서거정(1420~1488)은 「홀로 앉아 느낀 바가 있어(獨坐有感)」에서 “시름겨운 내 마음은 창자 없는 게가 부럽고(愁腸却羨無腸蟹)”라 하였고, 김상헌(1570~1652)은 「최 상공과 이 상공이 지은 ‘동궁에서 계를 하사하여 보내주시다’에 차운하다(次崔李二相公東宮賜送郭索韻)」에서 “무장공자 계에게 창자가 없다고 말하지 말지니, 녹아내린 내 창자보다 네 창자가 더 많으리(休言公子無腸在, 若比消腸爾更多).”라고 하여 계를 가져와 자신의 시름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전통 시기에는 사람의 감정과 지적 능력이 창자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말에서도 지극한 괴로움을 “애(창자)가 끊어진다”고 하거나 “애간장을 태운다”고 하는 데서 볼 수 있듯 창자는 감정이 일어나는 근원이며, 또 “선생은 배속에 경술을 가득 담고(先生滿腹貯經術)”, “일반 사람과 달리 문장이 배에 가득차 있다네(文章滿腹與人殊)”, “배속 가득한 경륜에 소매를 한가히 늘어뜨리고(滿腹經綸輸袖手)” 등에서 보듯 지식과 경륜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¹⁶⁾ 요컨대 창자는 감정과 지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 게처럼 창자가 없다면 애초에 근심 걱정이 생겨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창자가 없다[無腸]는 것은 ‘배알이 없다’ 즉 ‘자존심이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서거정은 “내 자신이 머리 기른 스님이란 걸 잘 아나니, 참으로 배알이 없는 게와 같구나.”¹⁷⁾라고 노래하였다. 또 신광한(1484~1555)이 18살 때 냇가에서 장난하다가 이웃집 종이 발로 차서 물속에 엎어지게 되었다. 신광한이 “너는 종인데 어찌 감히 공자를 업신여기느냐?”고 했더니, 그 종이 “그대처럼 글을 모르는 자도 공자란 말인가? 아마도

15) 이만영이 편찬한 『재물보』와 이익이 편찬한 『성호사설』 「만물문」 등에 ‘계’에 관련한 자료가 모여져 있다.

16) 세 구는 장유, 「送守夢鄭先生之任襄陽」; 윤기, 「立春戲作兩絕. 蓋余囊甚恒多腹無物目無見之時. 故爲‘滿眼’‘滿腹’之語, 每句輒入不嫌重複, 聊以致新年祈祝之意云爾」; 송시열, 「次洪元九贈僧韻」에 각각 보인다.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참조.

17) 서거정, 「六用前韻」, 『四佳集』: “自知僧有髮, 政似蟹無腸.” 한국고전종합DB 참조.

무장공자일 것이다.”¹⁸⁾라고 비웃는 것을 보면 게를 무장공자라 하는 것은 어린 종까지 아는 말이었고, 죽대가 없다는 비난으로 널리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 ‘게’는 내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입 가까운 쪽에 붙어있고 투명하여서 잘 보이지 않을 뿐인데, 사람의 눈으로 관찰할 때는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조선 시대 문인들이 게를 의인화하여 작품을 짓고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김성일(1538~1593)은 사부(辭賦) 형식으로 쓴 「무장공자사(無腸公子辭)」에서 ‘게’를 사리사욕이 없는 은자(隱者)로 의인화하였다. 서문에서 “섬에 작은 게가 있는데, 모양이 작고 맛이 비려 사람이 먹을 수 없다. 산에 살거나 물가에 있어도 잡아키는 자가 없으니, 지혜가 있는 듯하다.”¹⁹⁾고 하여 노장(老莊)의 처세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작품은 ‘내장이 없다[無腸]’는 뜻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는데, “세상에는 벌레도 간이 있고 쥐도 위가 있거늘, 어찌하여 너는 내장이 없나?(世皆蟲肝而鼠胃, 爾胡爲乎無腸?)”로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저잣거리의 소란함을 싫어하여, 자신의 자취를 지우고 물가[滄洲]에 왔는가? 먹고 사는 수고로움을 슬퍼하여, 지렁이처럼 먹지 않는 법을 배웠는가?(厭下土之喧卑, 聊晦迹於滄洲者耶? 悲口腹之有累, 學蚯蚓之無求者耶?)”라고 반문하고 있다. 오히려 기이한 모습과 특이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거북과 용은 ‘오직 지혜를 드러내고 욕심이 많기에’ 사람에게 잡혀 죽임을 당한다(彼靈龜與神龍, 豈不形奇而質異? 惟其逞智而多慾, 故爲人之所斃.)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때문에 “아! 그대에게 내장이 없는 것은 진실로 몸을 지키는 좋은 그릇이로다(嗟公子之無腸兮, 實保身之良規.).”라고 결론짓고 있다. ‘게’는 외적으로 보자면 크기도 작고 맛도 없어 사람은 물론 개나 고양이도 거들떠보지 않고 제사상에도 오르지 못하거니와(且復腥其肉而穢其形, 薄滋味兮無可欲. 猫犬過而不顧, 況從事於籩豆.),

18) 김시양, 『涪溪記聞』: “如君不知書者, 亦公子耶? 是必無腸公子也.” 한국고전종합DB 참조. 권필도 「郭索傳」에서 “세상 사람들은 때로 ‘배알이 없다’고 광석을 조롱하는데 어찌 지나친 것이 아니겠는가(世或以無腸譏索, 豈不過也.).”라고 하였다.

19) 김성일, 「無腸公子辭」序文: “島中有小蟹, 形微而肉腥, 人不可食. 山居水處, 物無害者, 有似智者焉.” 한국고전종합DB 참조.

또 내적으로 보자면 게 자신이 창자가 없어 무욕과 무심이기에, 이러한 내의 적 요인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었다고 보았다. 작자는 “진흙 속에 있다 해도 욱되지 않으니, 물과 구름 속에 지내니 얼마나 깨끗한가! 산에 살거나 물가에 있으며, 어느 곳에서든 만족하지 않은 바 없으라(泥塗兮非辱, 水雲兮何潔! 山居兮水處, 蓋無入而不自得.).”²⁰고 찬탄하고 있다. 요컨대 작자는 ‘게’를 무장공자(無腸公子)라 부르는 데 착안하여, 내장이 없으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오욕칠정의 감정과 지략을 세우는 지혜도 부리지 않는다고 보았다. 전형적인 무욕의 은자를 비유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무엇보다도 ‘게’에 문화적 의미를 부여한 것은 권필(1569~1612)의 가전체 소설 『곽삭전(郭索傳)』이다. 『곽삭전』은 ‘게’를 ‘오 땅 사람(郭索者, 吳人也.)’으로 의인화하여 그 조상들의 행적을 서술하고 이어서 곽삭의 성격과 태도, 벼슬에 대한 사양 등을 전기체로 전개하였다. 게의 성품을 “세속을 떠나 자연에서 노니는 높은 정취가 있다(有物外高致)”고 개괄하고, “세상을 피해 소택지로 달아나, 갈대밭 사이를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다니며 자신의 자취를 없애는 데 힘써, 세상 사람의 입에 오르기를 바라지 않았다(避世亡在澤中, 僂跚勃率於蘆葦間, 務滅其跡, 不欲上人齒牙間.).”²¹고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전형적인 은자의 풍모라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임금이 이인(異人)으로 여기고 조정의 요직[喉舌之任]에 앉히려 부르자 조정에 불려나간 곽삭이 두 손을 들어 이마에 대고 사양하며 말한 부분이다. “폐하께서 명하시면 소신은 비록 꿩의 가마라도 사양하지 않고 뛰어들 것이옵니다. 다만 소신은 무사라 공명에는 담박하옵니다. 차라리 더러운 도랑에서 노닐며 즐거워할지언정, 나라의 권력을 가진 임금께 구속당하지 않고자 하나이다.”²⁰ 곽삭의 답변을 보면 장자(莊子)가 초 위왕이 재상으로 부를 때 거절한 말을 그대로 하고 있다. 요컨대 『곽삭전』에서 그린 ‘게’의 형상은 높은 벼슬을 거절한 고결한 은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²¹

20) 권필, 『郭索傳』: “陛下有命, 臣雖赴湯鑊, 所不敢辭. 然臣介士也, 薄於世味. 寧游戲污瀆之中自快, 無爲有國者所羈.” 한국고전종합DB 참조.

21) 송대 고사손(高似孫)도 자신이 편찬한 『蟹略』의 첫머리에 『郭索傳』을 썼다. 그러나 게에 관한 일련의 특징으로부터 갑옷을 입은 강개한 무인으로 묘사하고(耿介不受擾觸, 外甚剛果, 若奮冚甲, 中實

이 작품에 대해 동시대에 활동했던 김우급(574~1643)은 『‘곽삭전’의 끝에 뜻을 부연한 서문(郭索傳後演序)』을 써서 곽삭의 조상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또 권필이 “겉이 단단하고 속이 황색이니, 아마도 『주역』을 배운 듯하다(剛外而黃中, 其學易者耶.)”고 한 데 대해 다음과 같이 부연하였다. “권필은 곽삭이 『주역』을 배웠다고 했는데, 이는 곽삭을 보면 분명한 사실이다. 『주역』에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날 줄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곽삭은 본디 뒷걸음을 치는 자이니, 이를 보면 그는 아마도 『주역』을 배웠을 것이다.”²²⁾ 곽삭이 강호에 은거하며 임금의 벼슬을 주어도 나아가지 않았기에, 김우급은 ‘곽삭은 본디 뒷걸음을 치는 자이다(索固退步者)’고 한 것이다.

요약하면 『무장공자사』와 『곽삭전』에 나타난 ‘계’는 뜻이 고결한 은자를 비유하거나, 특히 『곽삭전』에서는 임금이 높은 벼슬을 내려도 받지 않은 자로 형상화되었다.

4. ‘전퇴후퇴’의 의미

위에서 보듯 조선에서 창조된 계의 형상에서, ‘계’ 염자도의 화제를 해석할 근거를 찾을 수 있거니와, 염자도에 그려진 ‘계’의 의미도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염계한전’ 다음에는 나오는 말이 ‘전퇴후퇴[前退後退]’ 또는 ‘전진후퇴[前進後退]’에서 어느 말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다. 둘 중에서 ‘전퇴후퇴’가 더 적절한 것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김우급의 『곽삭전의 끝에 뜻을 부연한 서문』에서 ‘곽삭은 본디 뒷걸음을 치는 자이다(索固退步者)’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주역』은 비판적 맥락에서 ‘나아갈 줄을 알고 물러날 줄 모른다’고 하였는데, 김우급은

柔脆, 殊無他腸, 人皆愛之, 稱其爲無腸公子.), 필탁, 육구몽, 황정건이 좋아한 대상으로 간략히 서술해 곽삭으로 의인화된 인물의 형상화는 약한 편이다. 이와 비교해 볼 때 권필의 『곽삭전』은 인물의 행동은 물론 정신과 성격까지 창의적으로 형상화시켰다.

22) 김우급, 『郭索傳後演序』: “石洲稱索學易, 此眞索實迹也. 易曰‘知進而不知退’, 索固退步者, 此其所以學易也歟.” 한국고전종합DB 참조.

이 말을 이용하여 곽삭의 ‘물러남[退]’을 칭송하였다. 이때의 ‘물러남’은 당연히 벼슬에서 물러나는 일을 비유한다. 같은 맥락에서 임억령(1496~1568)은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날 줄을 모른다면 결국은 넘어지고 말 것이다(知進不知退, 竟至於顛跌.)”고 했고, 김육(1580~1658)도 “어찌 염치를 완전히 잃고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날 줄은 모른단 말인가!(豈可都喪廉恥, 知進而不知退乎!)”라 한 것을 보면 이러한 생각이 동시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선의 문화적 맥락에선 ‘물러남[退]’을 ‘나아감[進]’에 대비하여 높이 칭송하였기 때문이다. ‘물러남[退]’은 염퇴(廉退)라 하여 높이 칭송하고 이에 대비하여 ‘나아감[進]’은 ‘무모하게 나아감[冒進]’ 또는 ‘쉽게 나아감[易進]’ 등으로 보아 부정적으로 비판하였다. 인물 평가에서도 으레 “염직(廉直)의 마음이 있어, 함부로 나가지 않았다”²³⁾라거나, “염퇴(廉退)하여 청빈하게 살기를 좋아하고, 벼슬로 나감을 영예로 생각하지 않았다.”²⁴⁾라거나 “퇴계는 항상 염장(斂藏)과 염퇴(廉退), 청수(淸修)와 고절(苦節)의 도로써 스스로를 지켰다.”²⁵⁾는 등으로 ‘물러남’을 인물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삼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품의 인물을 오히려 조정에서 찾아 임용했다는 점이다. 『조선왕조실록』 성종 8년(1477)에 김질이 사직하고 귀향한 노자형에 대해 “노자형은 염정(廉靜)하고 자수(自守)하여 진용(進用)되기를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고 하자 성종이 “노자형 등을 임용하도록 하라.”고 하였고,²⁶⁾ 『조선왕조실록』 성종 24년(1493)에 성종이 전 덕산현감 황정에게 하서하여 말하기를 “그대가 청수(淸修)에 염퇴(廉退)하고, 학문이 정숙(精熟)하여 사표(師表)로서 꼭 합당하므로, 이번에 성균관 전적을 제수하니, 빨리 올라와서 임직하라.”²⁷⁾고 하였고, 『조선왕조실록』 중종 12년(1517)에 최숙생

23) 『大東野乘』, 『己卯錄續集』: “存心廉直, 不苟進取.” 한국고전종합DB 참조.

24) 허목, 『記言』, 『送高山李察訪序』: “好廉退居貧, 不以干進爲榮.” 한국고전종합DB 참조.

25) 정여환, 『請享疏』: “退溪常以斂藏廉退淸修苦節之道, 自守焉.” 한국고전종합DB 참조.

26) 『조선왕조실록』 성종 8년: 金頌啓曰: “自亨廉靜自守, 不欲求進, 叔山以病辭職, 豈以今時爲不可仕耶?” … 上曰: “自亨等可敍用.”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참조.

27) 『조선왕조실록』 성종 24년: “聞爾淸修廉退, 學問精熟, 雅合師表, 今除成均典籍, 斯速上來就職.”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참조.

이 “옛사람은 염퇴(廉退)하는 자가 많았으므로 수령이 친히 과거에 응시하도록 권하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자라면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라고 말하고 신용개도 “외방에 염퇴하여 과거 보러 오지 않는 자가 있다면 하서하여 올려오게 하시는 것이 옳겠습니다.”고 하니 중종이 “염퇴하는 사람은 올려보내게 하라.”고 하였다.²⁸⁾ 그러므로 ‘몰러남’의 미덕은 도덕적 평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실제적인 임용에도 유용한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중요시되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경쟁을 통한 발전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치와는 상당히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사실에서 우리는 관직의 진퇴와 관련될 때 ‘퇴[退]’를 긍정적으로 보고 ‘진[進]’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전퇴후퇴’는 임진왜란 이후 유행한 ‘전퇴후진[前退後進]’이란 말을 비판하고 수정하는 의도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염자도의 ‘전퇴후퇴’란 말은 안방준(1573~1654)이 말한 ‘전퇴후진’과 동일한 문자 구조여서 그 관련성이 밀접해 보인다. 안방준은 병자호란 후에 선비가 벼슬로 나아가는 일은 부당하다고 여겨 1650년(효종1) 송시열과 김집에게 보낸 편지에서, 김상헌과 김집 등이 효종 때 벼슬에 나온 일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전에는 몰러났다가 나중에는 나아간다[前退後進].”고 질타하였고, 이에 신면 등이 이를 지당한 논의라고 크게 칭송하였다. 이 논의는 송시열과 김수항 등의 반론으로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²⁹⁾ 염자도는 이를 비판하면서 대비적인 의미로 ‘전퇴후퇴’란 말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연구는 모두 화제 가운데 ‘전퇴후퇴’란 말의 맥락이 파악되지 않기에 ‘전진후퇴’를 선택하였고, 이 말에 구속되어 ‘계’가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한다고 해석하였다. 물론 계에게는 그러한 면이 있지만, 이는 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동물에게도 마찬가지로 있는 특징이다. 생각해 보면 ‘계’의 특징적인 모습은 제 구멍으로 쭉쭉 잘 들어가는 습성이다. 계는

28) 『조선왕조실록』 중종 12년: 淑生曰: “古之人, 多廉退者, 故守令親勸爲之駕. 若聞奇馳來者, 則將用之於何處乎?” 用漑曰: “外方有廉退不赴舉者, 則下書, 令上送, 可也.” 上曰: “廉退之人, 令上送可也.”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참조.

29) 송시열, 『宋子大全隨簡』 권27과 김수항의 『文谷集』 「上尤齋」. 한국고전종합DB 참조.



[그림5] 게의 오른쪽에 ‘廉溪寒泉, 前退後退’, 왼쪽에 ‘栗里松菊, 鬱林載石’이란 화제가 보인다.

모래밭이나 빨밭에 나와 있다카도 사람의 기척이 조금이라도 나면 금세 제 구멍으로 쪽쪽 들어가기 일쑤이며, 시냇가의 축대 아래 돌 틈에서 민물 게를 잡을 때도 보면 미끼를 물 듯 물 듯하면서도 걸핏하면 제집으로 쪽쪽 들어가 버린다. 이러한 모습을 연상하면 게는 그야말로 김우급이 말했듯이 ‘본디 뒷 걸음을 치는 자(固退步者)’인 것이다. 뒷걸음을 친다는 것은 자신의 집으로 잘 들어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염자도는 이러한 뒷걸음을 잘 치는 게의 모습을 그려 벼슬을 자주 물리치는 염퇴[廉退]의 정신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주돈이와 주희의 염퇴

다음으로 생각해볼 문제는, ‘염계한친, 전퇴후퇴’란 화제가 성립하려면 무엇보다도 주돈이와 주희가 ‘게’와 같이 ‘물러남’을 실천했는지 여부이다. 주돈이와 주희는 모두 송대 성리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주희는 조선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 주돈이가 전형적인 염리(廉吏)로 청렴을 실천하는 면이 강하다면, 주희는 자주 벼슬을 사양하여 염퇴(廉退)하면서 백성에 대한 구휼 사업과 교육 사업에 열중한 점에서 주안점이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관직에 연연해하지 않은 공통점이 있다.

주돈이는 14세에 부친이 죽자 삼촌인 용도각 학사 정향을 따라 호남 영도에서 수도 개봉에 갔다. 20세에 삼촌 정향이 자신의 벼슬로부터 나오는 음서 자격을 주돈이에게 주었기에, 주돈이는 장작감 주부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24세에 강서 홍주 분녕현 주부가 되어 오랫동안 미결이었던 옥사를 해결하였다. 28세에 강서 남안에서 형옥을 담당할 때는 무고한 죄수를 처결하여 공적을 세우려는 전운사 왕규에게 반발하여 그들의 무죄를 주장하였다. 이때 사직을 결심하고 “사람을 죽여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는 일이라면 나는 하지 않겠다(殺人以媚人, 吾不爲也.)”고 말하였는데, 결국 왕규는 주돈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죄수들을 풀어주었다. 38세에 대리시승으로 있다가 남창현령으로 부임하자 현지 백성들이 자신의 사정을 호소할 사람을 찾았다며 기뻐하였다고 『송사』는 기록하고 있다. 한번은 주돈이가 병으로 혼절하여 하루가 지나서야 깨어났다. 이때 사람들이 그의 집에 가보니 집안에는 상자 하나에 헤진 옷과 헌책만 있었다. 이를 목도한 반흥사(潘興嗣)는 주돈이의 사후 그의 묘지명을 지으면서 “지극한 청렴으로 봉양하면서, 봉록은 친척에 나누어주고 남은 건 손님을 접대하는 데 썼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주돈이가 명성을 쌓으려 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돈이는 이를 대하면서도 태연하였다.”고 했다.³⁰⁾ 48세에 영주 통관이 되었을 때 조카가 직접 영주에 와 친척들에게 낮은 관직이라도 힘써 달라고 청탁하였다. 주돈이는 조카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면서 「임지에서 고향의 친척들에게 부침(任所寄鄉關故舊)』이라는 시를 썼다. “이 늙은이는 원래부터 강직하고 차가워, 관직에 있으면서도 옛 유학자의 완고함을 벗지 못했다네. 좋은 술은 맛을 몰라 술잔을 멈추고, 언제나 젓가락을 들어 담백한 채소만 먹는다네(老子生來骨性寒, 宦情不改舊儒酸. 停杯厭飲香醪味, 舉箸常餐淡菜盤.).” 55세에 광남동로 제접형옥이 되었을 땐, 단주 지주 두자(杜諧)가 단연(端硯, 단주에서 나는 벼루)의 매매를 농단하여 백성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주돈이는 관리가 단연을 살 때는 2매 이상 못 사도록 규정을

30) 潘興嗣, 『周敦頤墓誌銘』, 『周敦頤集』, 中華書局, 1990, 91쪽: “奉養至廉, 所得俸祿, 分給宗族, 其餘以待賓客. 不知者以爲好名, 君處之裕如也.”

만들어 시행하였다.

주돈이의 행적에 대해 황정견(1045~1105)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품이 아주 높고, 마음이 광명정대하여 마치 비 갠 뒤의 바람과 밝은 달과 같다. 이름을 얻는 데 소홀하나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는 데는 민첩하며, 자신의 복록을 구하는 데는 담담하나 민심을 얻는 일은 중시하며, 자신은 아껴 쓰면서 흠아비와 과부를 편안하게 하는데 힘쓰고, 세속에 영합하는데 미숙하나 옛사람을 벗으로 삼기는 좋아한다.”³¹⁾ 황정견의 스승 소동파(1036~1101)도 『고주무숙선생염계(故周茂叔先生濂溪)』에서 다음과 같이 칭송하였다. “세속 사람들은 이름과 실제의 차이에 현혹되지만, 성인은 이름과 실제가 합치되기에 미혹이 없는 듯하다. 사람들은 화가 나면 물속의 게에게도 화를 내고,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의 집 지붕 위의 까마귀도 좋아하지. 이 시대가 있음으로 해서, 그 이름이 선생의 ‘염’과 합치되는구나. 선생은 본래 덕을 온전히 갖추었지만, 염퇴했기에 결국 외진 곳에 있게 되었네. 도연명이 팽택의 오두미를 버린 것과 같고, 수양산에 살았던 백이 숙제와 비슷하구나.”³²⁾ 여기에서 소동파는 주돈이가 “염퇴했기에 결국 외진 곳에 있게 되었네(廉退乃一隅)”라고 하여, 그의 행동을 ‘염퇴’라는 말로 개괄하였다.

주희는 복건성 우계현에서 태어났으며, 19세에 진사에 급제하고 22세부터 좌적공랑으로 벼슬을 시작하였다. 28세 때 천주 동안현 주부를 마친 뒤에는 벼슬을 하지 않고 주로 교육과 저술에 열중하였다. 34세 때는 효종이 즉위하면서 시무에 대해 민간의 의견을 구하자 주희가 봉서(封書)를 올려 항금(抗金)과 억불승유를 극력 주장하였다. 남송의 조정은 기본적으로 금나라와 화친하는 주화파가 득세하였기에 재상 탕사되는 주희의 의견에 좋아하지 않아 국자감 무학박사로 임명하였고, 이에 주희는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38세 때 복건 송안에 수재가 들자 조정의 명을 받아 시찰하던 주희는 부자들에게 구휼을 권하고, 관청에 양식 6백 곡을 빌려주길 청해 백성들이 굶주림

31) 脫脫, 『宋史』 『周敦頤傳』, 中華書局, 1985: 黃庭堅稱其“人品甚高, 胸懷灑落, 如光風霽月. 廉於取名, 而銳於求志, 薄於微福, 而厚於得民, 菲於奉身, 而燕及菑癘, 陋於希世, 而尚友千古.”

32) 蘇軾, 『故周茂叔先生濂溪』, 『蘇軾詩集』, 中華書局, 1982, 1666쪽: “世俗眩名實, 至人疑有無. 怒移水中蟹, 愛及屋上烏. 坐令此溪水, 名與先生俱. 先生本全德, 廉退乃一隅. 因拋彭澤米, 偶似西山夫.”

을 면하게 하였다. 이때 ‘사창’(社倉)을 설치할 것을 조정에 건의하여 이후 널리 실시되었다. 49세 때 남강 지부가 되어 절동 지역에 든 대기근에 구황 사업을 전개하였다. 당시 전 태주 지주 당중우의 불법을 탄핵하였는데 그 친척 왕희의 질시를 받아 9개월 만에 이직하고 귀향하였다. 65세 때 담주 지주에서 환장각 지주 겸 시강이 되었으나 권력을 잡은 한치주와의 불화로 곧 파직되었다. 주희는 지방의 관리로 나갈 때면 학교를 세우고, 교화를 넓히고, 관리를 감독하고, 민풍을 순화시켰다. 주희는 주돈이를 경모하면서 48세 때 『염계선생 사당기(濂溪先生祠堂記)』와 『염계선생 화상기(濂溪先生畫像記)』를 썼으며, 남강, 여산, 강주 등 주돈이의 행적지를 방문하였고, 나중에는 백록동서원의 생도들을 데리고 염계사(濂溪祠)를 찾아가 배알하기도 하였다. 주희의 행적을 보면 자주 벼슬을 거절하고 물러났으며, 조정에서 여러 번 불러도 나가지 않은 때가 많았다. 이에 효종이 “주희는 안빈수도(安貧守道)하고 염퇴(廉退)하니 가상하다.”고 하였다.³³⁾ 효종도 주희의 행동을 ‘염퇴’라 요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보듯 주돈이와 주희는 구체적인 행적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벼슬에 연연하지 않는 점에선 일치한다. 소동파의 주돈이에 대한 시와 효종의 주희에 대한 평에서 공통적으로 ‘염퇴(廉退)’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이야말로 두 사람의 행적을 가장 잘 개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면 주돈이와 주희는 염결의 정신으로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물러났다는 공통점을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계’ 염자도의 화제를 다음과 같이 확정지을 수 있다.

廉溪寒泉, 前退後退.

염계선생 주돈이와 한천정사를 세운 주희는, 처음에도 물러났고 나중에도 물러났다.

33) 정인지 등, 『治平要覽』 제131권에서 절록한 『資治通鑑續編』: “熹安貧守道, 廉退可嘉.” 한국고전종합DB 참조.

화제의 해석에 있어, ‘전퇴후퇴’를 “앞사람(주돈이)도 물러났고 뒷사람(주희)도 물러났다.”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앞 구와 연결했을 때 주어가 반복되어 전체 문맥이 자연스럽지 않기에 취하지 않는다.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도 물러났고 뒤로 물러나야 할 때도 물러났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의미가 순통하지 않기에 취하지 않는다. 결국 “처음에도 물러났고 나중에도 물러났다”고 하여야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이 염퇴하는 태도를 가리킬 수 있으며, 안방준이 말한 ‘전퇴후진[前退後進]’의 태도를 비판한 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6. 조선에서의 염퇴의 장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계’ 염자도의 주제에 가장 합치되는 개념은 ‘염퇴’(廉退)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더 확인하기 위해 ‘염’과 ‘염퇴’의 개념을 정리하고, 조선에서의 염퇴의 장려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자 ‘염(廉)’의 원뜻은 ‘당옥(堂屋)의 옆’인데, 건물 측면에서 바닥에 기단 상부가 보이는 곳을 가리킨다. 이곳은 기단 상부가 반듯하게 모서리가 저 있으므로, 이로부터 반듯하고 날카롭다는 뜻이 되었고, 더 나아가 사람의 품행이 방정하고 절도가 있다는 뜻으로 인신(引伸)되었다. 맹자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될 때, 받는다면 ‘염’을 손상하게 된다(可以取, 可以無取, 取傷廉).”고 했을 때의 ‘염’이다. 이는 공자가 “많은 재물과 높은 신분은 사람이 바라는 바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면 누리지 않는다(富與貴, 是人之所欲也, 不以其道得之, 不處也).”고 말한 정신과 상통한다. 이처럼 ‘염’의 의미는 재물이나 소유와 관련한 도덕적 깨끗함을 나타낸다. ‘염’의 의미가 이로부터 정신적인 고결함까지 인신되어 갈 수 있으므로, 구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이음절어로 만들어 쓰는 경향이 있어 염결(廉潔), 염정(廉正), 염직(廉直) 등의 한자어가 파생되었고, 관리가 사욕을 버리고 재물에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뜻은 청렴(清廉)이란 한자어로 정착되었다.

‘염퇴(廉退)’의 원래 의미는 ‘염결하고 물러난다’는 뜻으로, 오늘날 쓰는 말로 ‘겸양으로 사양하다’는 뜻이 될 것이다. 『천자문』에도 “절의와 ‘염퇴’는 얹어지고 자빠진다고 해도 버려서는 안 된다(節義廉退, 顛沛匪虧.)”고 할 때의 ‘염퇴’이다. 사회적 행동의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례는 벼슬을 사양하거나 벼슬에서 물러난다는 뜻이다. 오늘날 쓰는 ‘용퇴’라는 말이 이에 가깝다. 이러한 염퇴의 의미를 가장 인상적으로 표현한 사람은 도연명(365~427)으로, 그가 쓴 『선비의 불우함은 탄식하며(感士不遇賦)』 서문에 다음 대목이 있다.

순박한 기풍이 사라진 이후, 거짓의 풍조가 크게 일어나더니
 민간에서는 ‘염퇴의 절조’가 해이해지고,
 조정에서는 ‘쉽게 나가려는 마음’이 경쟁하는구나.
 (自眞風告逝, 大僞斯興, 閭閻懈廉退之節, 市朝驅易進之心.)³⁴⁾

도연명의 위 구절은 사회의 기풍은 사람들의 정신과 태도에서 나온다는 전제 아래, 관직을 사양하는 풍조는 드물고 다투어 출세하려는 풍조는 심하다고 지적하였다. ‘염퇴(廉退, 겸양으로 물러남)’와 ‘쉽게 나아감[易進]’을 대비시키면서 ‘퇴[退]’를 긍정적으로 보고 ‘진[進]’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이러한 ‘염퇴’의 정신은 중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줄곧 강조되었다. 통일신라의 최치원(857~?)은 “본국은 울루(鬱壘)의 반도(蟠桃)와 경계를 접했지만 무력과 위세로 임하는 것을 대단하지 않게 여겼으며, 백이 숙제의 고죽 땅과 강역을 잇대고 있어 본시 염퇴(廉退)의 바탕을 지녀 왔습니다.”³⁵⁾라고 ‘염퇴’를 강조하였다.

조선에서도 염퇴는 시종일관 장려되고 중시되었다. 관리 등용에 있어서도 가장 일반적인 원칙은 ‘염퇴를 권장하고 조급한 경쟁은 억제하는(獎廉退而抑

34) 陶淵明, 『感士不遇賦』, 『陶淵明集』, 中華書局, 1979, 145쪽.

35) 최치원, 『讓位表』, 『孤雲集』, “雖鬱壘之蟠桃接壤, 不尙威臨, 且夷齊之孤竹連疆, 本資廉退.” 한국고전종합DB 참조.

躁競)’ 것으로 ‘무모하게 나아가는 습속을 막고, 염퇴의 도를 부활(冒進之習可塞, 廉退之道可復矣.)’하려 하였다. 중종 때 영의정 정광필은 “전조(銓曹)는 마땅히 염퇴하는 자를 뽑아 쓰고, 경박한 자는 물리쳐야 한다.”³⁶⁾고 하였다.

촘촘하고 빈쇄한 법령으로 다스리는 법치가 아니라 덕치(德治)를 표방하는 조선에서 염퇴가 중요한 것은 사회의 기풍이 관리와 위정자의 교화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의 사회 기강의 문란과 관리의 부패는 수시로 일어났는데, 1628년 8월 병조참의 유백중(1587~1646)의 상소에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근자에 보건대 기강이 해이하여 사람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욕심의 물결이 하늘을 뒤덮으며 탐오(貪汚)가 버릇이 되어 수령의 빈 자리 하나를 두고 머리가 깨지도록 경쟁하고 한번 자리를 얻으면 오직 백성의 재물을 굶어먹는 데만 여념이 없습니다. 백성의 원성이 날로 늘어나고 재력이 탕진되는 까닭은 여기에서 연유합니다.”³⁷⁾ 염퇴의 기풍은 비단 관리와 위정자의 기강뿐만 아니라, 그 영향을 받는 백성의 풍속까지 이어지는 문제였다. 예컨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이 염퇴한다면, 가까운 친구와 친척과 사제지간은 물론 한 고을의 풍속에도 좋은 영향을 주며, 나아가 전체 관리들의 기풍에도 선한 영향을 준다. 염퇴하는 자들은 강개하여 권세 있는 자들에게 아첨하지 않기에 기풍이 쇠신되며, 그 백성들도 교화되므로, 결국에는 나라의 기강이 새로워지고 기상이 아름답게 된다. 염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익(1681~1763)은 다음과 같이 논리를 전개하였다.

나라의 관리 등용은 탐심이 없는 사람을 우선하고, 재능있는 사람을 그 다음에 두어야 할 것이다. 재능 없는 관리가 주는 피해는 일이 시행되지 않는 데 그치지만, 탐심이 있는 관리는 자신의 이익만 엿보기 때문에 나라와 백성을 잊어버린다.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인데, 자신의 이익만 전적으로 돌본다면 나라가 망해도 근심하지 않을 것이다. 탐심에는 이름을 탐하는 게 있고, 관직

36) 『조선왕조실록』 중종 25년: 光弼曰: “銓曹當知此意, 廉退者擢用之, 輕薄者擯棄之.” 조선왕조실록 참조.

37) 『대동야승』 『續雜錄』 ‘戊辰年 下’: “近見紀綱頹弛, 人不畏法, 慾浪滔天, 貪汚成風, 一守令之闕, 碎首爭之, 及其既得, 惟事割割. 民怨之日滋, 物力之蕩竭, 職此由也.” 한국고전종합DB 참조.

을 탐하는 게 있고, 재물을 탐하는 게 있다. 이름을 탐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있기에 얻기 어렵고, 재물을 탐하는 것은 천박하기에 사람들이 버려야 하는 줄 알지만, 오직 관직을 탐하는 것은 방비할 수 없다. 관직을 탐하는 사람이 일단 세력과 지위를 얻으면 이름과 재물도 따라오므로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구하며 죽어서라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을 쓰는 데는 먼저 ‘쉽게 나아가려는[易進]’ 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했으니 ‘쉽게 나아가려는’자가 곧 관직을 탐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신분이 높으면서 만족할 줄 알기는 쉽지만 가난하면서 나아가지 않기는 어려운 것이다. 세상에서 신분이 높는데 염퇴(廉退)하는 자를 원래의 가난하고 낮은 처지로 둔다고 해도 꼭 장래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이다.³⁸⁾

이익도 여기서 ‘염퇴(廉退, 겸양으로 물러남)’와 ‘쉽게 나아감[易進]’을 대비시키면서, 관리의 도덕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나라의 흥망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쉽게 나아가려는’ 자는 관직에 탐욕이 있는 것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므로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망해도 근심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벼슬하기를 즐겨 하지 않는, 염퇴의 절조가 있는 자를 임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중종이 내린 다음 전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내 일찍이 듣건대 벼슬을 얻기 전에는 얻을 것을 걱정하고 얻고 나서는 잃을까 걱정하는 무리가, 추천은 되었어도 제수되지 못하면 반드시 ‘내가 수차 추천은 되었으나 낙점은 받지 못하였다.’ 하여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니, 이는 선비의 기풍이 아름답지 못한 것이다. 지금 충효하고 염치를 이는 선비를 높이고 권장하려 하는데, 선비의 기풍을 고치지 않고서야 되겠는가? 구구하게 관직을 구하는 자는 급급하게 임용할 것이 아니요, 벼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지절(志節)과 염퇴(廉退)가

38) 이익, 『星湖僿說』 「人事門」: 國之求臣, 以不貪為先, 有才次之. 無才之害, 止於事不修舉, 貪得之人, 只窺占利己, 而忘國與民也. 利民便是利國, 利專乎己, 則國亡不卹也. 貪者, 有貪名, 有貪官, 有貪財. 貪名者有恥, 此猶難得; 貪財賤劣, 人知可棄. 惟貪官, 不可防, 既得勢位, 名與財同歸, 故捨生而求之, 至死而不悔也. 故曰: “取人, 先去易進之士.” ‘易進’者, 貪官之謂也. 然貴而知足, 易; 賤而不進, 難. 世之崇顯而廉退者, 其始使貧而處下, 未必不沾沾於前途也. 한국고전종합DB 참조.

있는 자를 추천하고 임용해야 할 것이다.³⁹⁾

‘벼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는 자를 뽑아 벼슬하게 한다’는 역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물론 어떤 사람이 정말로 열렬하고 겸양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관찰과 다수의 평판이 필요하기에 평가의 효율성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런데도 조선에서 ‘청백리 제도’를 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엄격하게 청백리를 선정한 것도 열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에서의 열퇴에 대한 중시와 장려는 국가의 안위와도 연관하여 생각하였다. 이는 열자도의 기본 주제라 할 수 있다.

7. ‘계’ 열자도의 주제와 의의

‘계’ 열자도에서 중심 이미지인 ‘계’와 두 구의 화제를 검토하였기에, 이제 ‘계’ 열자도의 전체 화면 구성과 의의를 살펴야 할 것이다. ‘계’ 열자도를 보면 상단의 계 그림 아래의 자획 속에는 일반적으로 소나무, 국화, 수석 또는 배 등이 그려져 있다. [그림1]부터 [그림4]까지 네 폭의 그림을 보면, 소나무와 국화가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여기에 수석이나 배 중 하나가 그려지거나 [그림3]과 같이 수석과 배가 모두 그려지기도 한다.

이들 형상의 의미에 대해선 보통 ‘울리송국, 울림재석[栗里松菊, 鬱林載石]’이라 쓰인 화제와 연결하여 해석한다. 화제를 해석하면 “(도연명이 은거한) 울리의 소나무와 국화, (육적이) 울림에서 (퇴직하며 배에) 싣고 온 바위”라 할 수 있다. 도연명은 오두미의 봉록을 받기 위해 소인배인 독우(감독관)에게 절하기 싫다고 하여 팽택령을 그만두고 지금의 강서성 구강시 서남쪽에 있는 울리에서 은거하며 은일의 즐거움을 노래한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39) 『조선왕조실록』 중종 9년: 予嘗聞之, 患得患失之輩, 見擬未除, 則必曰吾數擬望, 不得受點, 至發恨言, 此士習之不美也. 今欲崇獎忠孝、廉恥之士, 而不變士習, 可乎? 其區區求官者, 則不須汲汲用之, 不樂媒進, 有志節廉退者, 所當薦用. 조선왕조실록 참조.

그는 앞에서 인용한 『선비의 불우함을 탄식하며』에서 염퇴를 강조하였는데, 그러한 정신을 행동으로 옮긴 셈이다. 염자도에는 때로 ‘삼경취황, 송국유존 [三徑就荒, 松菊猶存]’이란 화제도 적혀 있는데, 이는 도연명의 『귀거래사』에 나오는 말로 “세 갈래 오솔길이 황폐해졌으나, 소나무와 국화는 아직도 있구나.”라고 하여 벼슬을 버리고 돌아와 보니 정원이 황량해져 있지만 송국이 아직 있어 기쁘다는 뜻이다. ‘세 갈래 오솔길’은 서한 말기 장후(蔣詡)가 왕망이 집권하자 벼슬을 버리고 귀향하여 정원에 세 갈래 길을 만들고 양종과 구종 두 은자하고만 내왕한 고사에서 나왔다. 도연명은 자신을 장후에 비유한 셈이다.

육적(188~219)은 동오에서 울림 태수로 부임하였는데, 임기를 마치고 귀향할 때 아무런 재물이 없는 탓에 배가 가벼워 바다를 건너기 어렵게 되자 바위를 실어 배를 안정시켰다. 결국 ‘울림석(鬱林石)’은 태수로 임직하면서 재물을 모으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청렴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 울림은 지금의 해남도 북쪽에 위치한 광서성 귀항시(貴港市)가 치소(治所)로, 이때 육적은 해로를 통해 화동 지역으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다.

화제와 연결해본다면, 그림에 있는 소나무와 국화는 도연명의 ‘염결’과 ‘염퇴’를 환기하고, 수석 또는 배는 육적의 ‘청렴’을 환기하고 있다. 이때 수석은 육적이 탄 배와 그 바위를 비유하여 그렸다고 볼 수 있다. ‘염결’, ‘청렴’은 모두 ‘계’가 나타내는 ‘염퇴’의 의미 속에 포괄된다고 할 수 있겠다.

위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시 ‘계’ 염자도를 보면, 상단에 계가 있고 아래에 글자 자획들이 얽혀있는 구성이 선명하여,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뒷걸음을 잘 치는 ‘계’가 글자의 획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집으로 뒷걸음질 쳐 들어가는 모양임을 알 수 있다. 가로세로로 뻗은 글자 획들은 은자의 오솔길인 ‘세 갈래 길(三徑)’처럼 보이기도 해서, 계로 비유된 벼슬을 버리고 귀향한 사람이 정원의 오솔길을 거닐며 소나무와 국화를 완상하고 때로 수석을 즐기거나 배를 타고 한가히 노닐며 연결한 마음을 닦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그림은 계와 자획과 자획 속의 그림들이 통합되어 있어 관람자는 ‘정신의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주돈이와 주희와 연결하면, 그들이 학문을 연구

하면서 때로 벼슬에 나갔다가도 언제나 물러나 자연을 즐길 줄 알고 염결한 마음을 닦을 줄 이는 고결한 정신을 나타낸 셈이 된다. 자획 속에 때로 연꽃이나 연잎이 있는데, 이는 주돈이가 『애련설(愛蓮說)』에서 “나는 연꽃이 더러운 진흙에서 자라나면서도 때 묻지 않는 것을 특히나 좋아한다(予獨愛蓮之出淤泥而不染).”는 뜻을 반영한 것이므로 역시 ‘염’의 의미이다.

위와 같이 새로운 이해에 바탕을 둔 ‘계’ 염자도는 이전의 해석에 비해 그 의의가 훨씬 크고 뛰어나다.

첫째, 염자도에서 표현한 계의 형상은 조선의 독자적인 창조이어서 다른 문자도보다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전의 계와 관련된 회화 전통과 전고에 없는 형상을 조선의 『곽삭전』과 『무장공자사』 등에 근거하여 도착화된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더욱 친근하고 절실한 의미를 창출하였다.

둘째, ‘염’이라는 형상화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의미를 이미지와 문자로 시각화에 성공하였다. ‘염’은 어려운 개념인데, 염퇴를 중심으로 염결, 염직, 청렴 등의 의미까지 층차를 두어 원만하게 포괄함으로써 ‘염’의 함의를 성공적으로 시각화하였다.

셋째, 글자의 자획마저도 은자의 오솔길과 같은 하나의 형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른 문자도에 없는 높은 통합성을 나타내었다. 자획이면서 자획이 아니고 오솔길이면서 오솔길이 아니라는 점은 동아시아 회화 전통에서 중시하는 ‘비슷하면서도 비슷하지 않는(似而不似)’ 미학까지 환기시킨다.

넷째, ‘계’ 염자도는 조선의 염퇴 문화와 사회적 지향을 인물 전고(주돈이, 주희, 도연명, 육적)와 문학 작품(『곽삭전』, 『무장공자사』)을 반영하는 사물 형상(계, 소나무, 국화, 배, 수석)으로 지극히 간결하고 고도로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 한 폭의 그림으로 한 나라의 핵심적인 정신 문화를 형상화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섯째, 관련된 자료들은 ‘계’ 염자도를 최초로 설계한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준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권필의 『곽삭전』과 안병준의 편지들이다. 특히 안병준이 ‘전퇴후진’이란 말로 원로들을 비판한 것이 효종 초기이므

로 그림은 이로부터 머지않은 시기에 제작되었으리란 추정이 가능하다. 만약 ‘전퇴후진’이란 말이 유행한 때부터 시기가 오래되었다면 화제의 전달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그림은 대략 17세기 후반에 제작되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제작 시기에 관련해서는 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겠지만, 문자도의 제작과 관련된 기록이 지극히 적은 상황에서는 관련 자료들의 연대가 중요한 참고가 되리라 본다.

8. 결론

본 연구는 ‘계’ 염자도의 ‘계’ 이미지 및 화제를 둘러싸고 모호하게 해석된 점들에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그림의 주제 해석에 있어서도 조선 시대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근거를 찾아내 더 적절한 독해를 시도하였다.

먼저 ‘계’의 해석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그림에 적혀있는 화제를 ‘염계한천, 전퇴후퇴[廉溪寒泉, 前退後退]’로 정하고, “염계선생 주돈이와 한천정사를 세운 주희는, 처음에도 물러났고 나중에도 물러났다.”고 풀이하여 두 사람의 염퇴 정신을 기린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조선 시대 ‘계’에 관한 문화적 인식을 「곽삭전」과 「무장공자사」 등에서 찾아냈으며, ‘물러남’을 높이 치고 ‘나아감’을 비판하는 보편적인 인식도 확인하였다. 또 주돈이와 주희의 행적에 대해서도 소동파와 송 효종이 ‘염퇴(廉退)’라 평가하였음을 보고, ‘계’ 염자도의 주제가 ‘염퇴’라고 판단하였다. ‘염퇴’는 사양하고 양보하는 겸손한 마음이짐이지만, 사회적 맥락에서는 벼슬을 사양하거나 물러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염퇴’의 정신은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나라의 기강과 사회의 기풍과도 관련되기에 중시된 정신이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화제를 ‘진진후퇴’로 읽었기에 ‘계’는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한다고 보았으나, 사실은 계는 걸핏하면 뒷걸음질을 쳐 제 집으로 물러나는 습성이 있고, 그림은 이를 형상화하였다고 보았다. 이러한 바탕에

서 ‘계’ 염자도를 다시 보면, 상단의 계로 형상화된 선비가 벼슬을 물리치고
 염퇴하여 글자의 자획들이 엮혀진 은자의 ‘세 갈래 길’이 있는 정원에서 연결
 한 정신을 수양하는 것으로 해독할 수 있다. 그 길에서 소나무와 국화를 완
 상하며 도연명의 염결을 떠올릴 수 있고, 수석을 감상하고 배를 타며 육적의
 청렴을 본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계’ 염자도는 상하 구조를 통합시키고 문
 자의 자획들이 자획이면서 동시에 조형 형상이 되도록 설계하여 높은 예술적
 완성도를 이루었다. 무엇보다도 조선의 자체적인 문화적 기호로 ‘계’의 형상
 을 창의적으로 사용한 점과 조선의 염퇴 문화를 간결한 형상과 자획을 써서
 절묘하게 통합한 점은 ‘계’ 염자도가 어느 문자도보다 독특하고 뛰어났음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 『민화』, 중앙일보사, 1993.
- 『선문대학교박물관 명품도록』 IV 민화·문자도, 선문대출판부, 2003.
- 『민화와 장식병풍』, 국립민속박물관, 2005.
- 『한국의 문자도』, 삼척시립박물관, 2005.
- 『조선민화』, 갤러리조선민화, 2020.
- 『한국의 채색화－책거리와 문자도』, 에스앤아이팩토리, 2015.
- 허 균, 『전통 미술의 소재와 상징』, 교보문고, 1991.
- 유흥준·이태호, 『문자도』, 대원사, 1993.
- 임두빈, 『한국의 민화』 3 물고기 글씨 그림, 서문당, 1993.
- 윤열수, 『민화이야기』, 디자인하우스, 1995.
- 정병모, 『무명화가들의 반란, 민화』, 다할미디어, 2011.
- 김영재, 『민화의 뿌리』, 자유문고, 2015.
- 김성일, 『無腸公子辭』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 권 필, 『郭索傳』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 김우급, 『郭索傳後演序』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 陶淵明, 『陶淵明集』, 中華書局, 1979.
- 周敦頤, 『周敦頤集』, 中華書局, 1990.
- 脫脫, 『宋史』, 中華書局, 1985.
- 余庭璧, 『事物異名校注』, 山西古籍出版社, 1993.
- 伍華 主編, 『周易大辭典』, 中山大學出版社, 1993.

A Study on the Theme of the ‘Crab’-type ‘Yeom’ Word Picture

Seo, Sung* · Kang, Hee Ahn**

This research found problems about the 'crab' image and the subject of the 'crab'-type 'Yeom' word picture[廉字圖], which was solved by vagueness, and tried to solve it. We found evidences in the cultural background of the Joseon Dynasty and tried a more appropriate solution.

First, the title written in the picture, which is an important part of the unraveling of ‘crab’, is confirmed as “廉溪寒泉、前退後退”, Which can be translated to “Zhou Dunyi[周敦頤] called as Mr. Lianxi and Zhu Xi[朱熹] who built Hanquan school, retired at first and continued to retire later.” In order to discuss this, we find cultural concepts related to ‘crab’ in the Joseon era in "*The Story of Kwaksak*"[郭索傳] and "*Bowelless gentleman*"[無腸公子辭], and we also confirmed there was raise ‘retreat’[退] and criticize ‘move forward’[進] concepts. Also, regarding the career of Zhou Dunyi and Zhu Xi, seeing that Su Dongpo[蘇東坡] and The Emperor Song-Xiaozong[宋孝宗] described it as ‘Yeomtoe’[廉退], we found the theme of the ‘crab’-type ‘Yeom’ word picture is ‘Retreat’. ‘Yeomtoe’ is a humble attitude to sneak around, but in a social context, it is a deed to specify or retire from the official office. This ‘Yeomtoe’ spirit was further emphasized in the fact that the Joseon of the Confucian nation was swayed by the Confucian tradition and the style of

* Professor Seo, Department of Culture and Education, Paichai University, Daejeon

** Professor Kang, Department of Basic Education, Paichai University, Daejeon

the society.

Since they read the subject as “前進後退” in the previous study, They saw that ‘crab moved forward and backward, but the fact was that it walk behind and retreat to its house. With these backgrounds, let's take a look at the ‘crab’-type ‘Yeom’ word picture, the upper crab is embodied in a scholar, he retires from his office and is training a clean mind in the garden with hermit's ‘the three-path’ intertwined with strokes. He can watch pine and chrysanthemums along the way, think of Tao Yuanmng[陶淵明]'s clean mind, watch longevity stones or ride a little boat to imitate Lu ji[陸績]'s integrity. In this way, the ‘crab’-type ‘Yeom’ word picture was designed so that the upper and lower structures were integrated, and the character stroke was designed to be a stroke but at the same time a figure, achieving a high degree of artistic perfection. Best of all, Joseon's self-made cultural notes creatively use the figure of 'crab', and the Joseon Dynasty's 'Yeomtoe' culture is exquisitely integrated with concise shapes and strokes to create an overall composition, it makes the ‘crab’-type ‘Yeom’ word picture was superior to any Munjado[文字圖].

Key words: ‘crab’-type ‘Yeom’ word picture, Yeom(clean), crab, Zhou Dunyi, Zhu Xi, Tao Yuanmng, Lu ji, Yeomtoe(retreat), Munjado(word picture)

